賀　序

여기 우리나라 환경법 발전의 개척자요 산 증인인 한국환경법학회의 동료와 후배들이 정성을 모아 강의중 회장님의 정년퇴직 기념호를 진증하는 뜻깊은 자리에 본인이 축하의 글을 쓰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회장님께서는 1936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신 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던 안동사범학교(지금의 교대)를 졸업하신 후 초등학교에 봉직하셨습니다. 그 후 뜻한 바 있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다시 공부하여 초지일관 법학자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께서는 평생 다른 직업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교육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저런 생각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흔하지만, 선생님은 40여년의 교직생활을 모교인 한양대학에서만 봉직하면서 오로지 후학들을 양성하는데만 몰두한 것입니다. 오로지 대학에서만 학문과 후진양성이라는 외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0년 이상의 대학 강단생활을 초지일관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연구와 발전에만 열과 성을 쏟아 왔을 뿐만 아니라, 고매한 인품과 선량한 심성은 항상 많은 동료와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는 뜻하신 바가 있어 관심의 폭을 환경법 분야에까지 넓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법과대학에서 환경법 전담교수를 두는데, 한양대학이 앞장을 서는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몇개 대학에서만 환경법 전담교수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회장님은 1999년부터 우리나라 환경법연구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법학회의 부회장의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 환경법의 발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작년 10월에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경법문화 창달과 환경법학 발달에 전력을 투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강회장님과 환경법과의 만남은 천성과 인품과도 맞는 운명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회장은 어린시절 목가적인 농촌에서 태어나 자연환경을 좋아하시고 산수풍경을 사랑하시며 순박한 심성을 가졌으니 환경법의 이념과 철학은 체질적으로 몸에 베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회장님의 이러한 공적은 평생의 반려자로서 강화장님을 내조해 오신 閣夫人 李好定 여사의 공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이 여사님은 한국 섬유패션업계의 유명인사 방명록에 빠질 수 없는 분으로 현재는 한국 섬유도시의 대명사 대구에 자리잡고 있는 섬유패션기능대학 학장으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인 정년을 맞아 환경법연구 등에 학문의 정열을 계속 불태우시고, 자상하고 친밀하며 기댈 수 있는 형님의 자리를 계속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강회장님 내외분과 가정의 무공한 강령과 화평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2001. 12. 23.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박 수 혁